

최근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학생 1천287명을 대상으로 '우리말 사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터넷상의 언어 및 맞춤법 파괴'(40.9%)란 응답이 가장 많이 끌었다. 뛰어어 '온어와 비속어의 남발'(20.4%), '소홀해지는 우리말 교육'(13.1%), '맞춤법이 틀려도 용인해 주는 분위기'(1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들도 우리말 사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인터넷상에서 문법파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562주년 한글날인 9일 한글은 갖가지 외래어와 신조어가 뒤섞여 국적불명의 언어로 뒤바뀌고 있다.

◇인터넷 언어로 한글 국적불명 상태=오나전, 지못미, 뭉미, 흘共同体, 아행행, 스샷, 고고상, 냐, 캐인스, 짤방, 여병주... 이 단어 중 두 개 이상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신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뜻은 커녕 외국어로 착각하기 싫상이다. 잘못된 인터넷 언어가 순수한 글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글 왜곡에 대해 우리

나라가 급격하게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인터넷이 압도적 통신 수단이 됨에 따라 자연스레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세대들이 컴퓨터 자판 기로 빠르게 대화하다가 잘못 입력해 오타가 발생한 것이 그대로 인터넷 용어로 굽어져 유행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멍미'는 컴퓨터 자판에서 '뭐임?'을 빠르게 입력하려다 잘못 입력했을 때 나오는 오타였다. '오나전

(완전)'이나 '스빈다(-습니다)' 등도 자판을 잘못 입력했지만 이 말이 네이션들로부터 유행어가 되면서 점차 한글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또 대형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나 카페, 토론방 등에서 인터넷 용어가 많이 사용되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도 문제=한글로 바꿔 사용해도 될 단어지만 외래어로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풍토도

문제다. 키홀더, 무빙워크, 립싱크, 마일리지 등을 열쇠고리, 자동길, 입술연기, 이용실적점수 등으로 바꿔 사용해도 충분하지만 굳이 한글이 아닌 외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글과 파괴라는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세대간 대화 단절이라는 부작용까지 넣고 있다.

정부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바람에 한글화 등에게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에 앞장섰다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선대 국어교육과 백수인 교수는 "말과 글은 그 나라의 정신이다. 외국어를 써야 대우를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글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학교에서도 올바른 한글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8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가 지난 98년 이후 10년만에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됐다. 화순초교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초등 3학년 10년만에 일제고사

전교조 반발... 일부 학생 체험학습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일제고사)가 8일 전국 5천756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초등학생들의 기초 학력수준, 학업능력 발달상태 등을 측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 전국 초등학교 3학년 가운데 3%의 학생만을 표집해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으로 실시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교정보공시제를 앞두고 학생들의 학력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해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표집이 아닌 전수 방식으로 학력평가가 실시되기는 지난

1998년 이후 10년만이다.

교과부는 12월 시행되는 학교정보공시제에 따라 이번 시험 결과로 나타난 기초학력 수준 도달 및 미도달 학생 비율을 지역 교육청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고사는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암극화, 교육불평등을 조장시킨다"며 일제고사와 성적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 등지에서 일부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생태체험학습을 떠나는 방식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했으나 집단 응시거부 사례는 없었다.

최종합격자는 2009년 2월5일 발표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등교사 233명 선발

전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은 2009학년도 공·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8일 발표했다.

선발예정인원은 25개 과목 233명으로 공립 25개 과목 220명(장애인 구분 선발 11명 포함), 사립은 3개 학교법인에서 6개과목 13명을 위탁해 선발한다.

올해 시험은 기존 2단계 전형방식에서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 제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평가의 3단계로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13~17일까지 전라남도교육청 민원실에서 교부하고, 대회의실에서 접수한다.

광주는 158명에서 319명으로 101.8%를 기록 전북은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66.2%(1천464명→

전남 초·중·고생 급감 등 교육 여건 열악

조선·관광 등 전문고 육성 시급

같수로 열악해지는 전남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 초중등학교 육성이나 전문계 고교 설립,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방안'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전남 발전연구원 RHD센터 연구진은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의 초·중·고 학생수는 29만 1천894명으로 1990년 57만5천93명에 비해 49.2% 감소했다.

초·중·고 학교수도 1990년 1천229개교에서 지난 해 855개교로 30.4% (374개) 감소했으며, 이중 초등학교가 전체 감소 학교수의 98.7%를 차지

했다. 특히 면 지역을 중심으로 과소학교 가급증해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220개교, 중학교 112개교에 달했다. 이로 인해 방과후 교육이 사실상 힘들어지고 '전공 상치교사' 급증이나 복식학급 운영, 학교 통폐합 가능성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 초중등학교 연계 육성과 함께 도시 사교육에 대응하는 방과후 학습센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조선 전문고와 관광 전문고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문계고교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기숙사와 체육관, 학교체육시설, 아영장 등 농어촌 특성에 맞는 학교육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자살 증가율 전국 두번째

10년간 두배 이상 늘어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과 광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나 한나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우리나라 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998년 287명에서 지난해 593명으로 106.6% 늘어난 전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은 13~17일까지 전라남도교육청 민원실에서 교부하고, 대회의실에서 접수한다.

광주는 158명에서 319명으로 101.8%를 기록 전북은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66.2%(1천464명→

2천433명) ▲충남 64.9%(445명→734명) ▲대전 55.7%(228명→355명) ▲충북 47.8%(316명→467명) ▲전남 44.5%(335명→484명) 순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자살자 수는 모두 9만4천87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998년 8천622명이던 자살자 수는 지난해 1만2천174명으로 41.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10년간 경기도에서 1만8천405명이 목숨을 끊어 가장 많았고, 서울(1만5천373명), 부산(7천376명), 경남(7천303명) 등 순이었다. 광주는 2천148명, 전남은 4천294명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햇빛 좋은 '한글날'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었고 대체로 맑았다.

광주	구름 조금	14~26°C
포항	구름 조금	15~24°C
여수	구름 조금	18~25°C
원도	구름 조금	14~25°C
구례	구름 조금	12~27°C
해남	구름 조금	10~26°C
장흥	구름 조금	10~25°C
고성	구름 조금	12~26°C
순천	구름 조금	12~27°C
영광	구름 조금	12~25°C
진주	구름 조금	11~25°C
남원	구름 조금	13~25°C
화성	구름 조금	11~26°C
충주	구름 조금	17~21°C

서해남부
안나다=서~북서풍 파고 0.5~0.5m
만나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안나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만나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목포 물길 (08:41)
물길 (22:04)
설물 (08:41)
설물 (22:04)

여수 물길 (04:56)
물길 (1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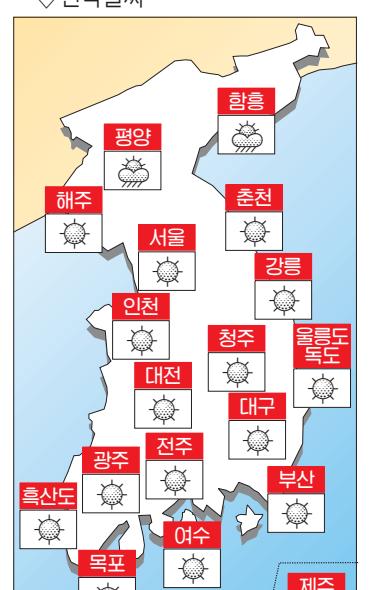
▲해뜸 06:33
▲해침 18:05
▲달듬 14:56
▲달짐 00:25

기상안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16/23 12/22 10/23 11/23 13/24 12/23



커밍아웃 모델 김지후 자살 '충격'

탤런트 안재환씨와 최진실씨, 장재원씨에 이어 모델 김지후(23)씨가 자살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17면

8일 서울 송파경찰에 따르면 최근 다수 방송에 출연했던 모델 김지후(23)씨가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께 송파구 잠실동 연립주택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함께 살던 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또 조선 전문고와 관광 전문고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문계고교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기숙사와 체육관, 학교체육시설, 아영장 등 농어촌 특성에 맞는 학교육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지후의 방에서는 "외롭다. 힘들다. 환경에서 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와 함께 그녀가 좋아하는 드라마 '비&애프터 성형외과', '거침없이 하이킥' 등이 출연했다.

김지후의 사망은 지난달 초 탤런트

안재환씨와 2일 뮤즈 페스티벌에서 3일 트랜스젠더 방송인 장재원씨에 이은 4번째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대중의 우려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딸 죽음에 비관

30대 목 매 숨져

8일 오후 5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사는 박모(36)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박씨의 처남(28)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숨지기 직전 '딸이 보고 싶다.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2일 교통사고 숨진 딸(5) 때 문에 괴로워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딸의 죽음을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바로잡습니다

본보 10월 1일자 8면에 보도한 '4년 제 대학을 신입생 충원을 전남 85.2% 그쳐 전국 최저' 제하의 기사와 표지에서 '목포대 충원율 87.7%'는 '98.5%'의 오기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목포대는 본보에 "대학교육협의회 통계프로그램의 오류로 잘못된 통계자료가 제출됐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박씨의 방에서는 "외롭다. 힘들다. 환경에서 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와 함께 그녀가 좋아하는 드라마 '비&애프터 성형외과', '거침없이 하이킥' 등이 출연했다.

김지후의 사망은 지난달 초 탤런트

안재환씨와 2일 뮤즈 페스티벌에서 3일 트랜스젠더 방송인 장재원씨에 이은 4번째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대중의 우려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img alt="Large